

<환 영> 살롬^^ 명절에 교회를 지키는 팀원들을 격려합니다. 연휴계획과 가정기도제목들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찬 양> ♪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 ♪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말 씬> 롬2:8~16

1. 여러분들의 고향이나 출신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각자 소개해봅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출신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다?(롬2:17~20)
2. 바울은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롬2:20~24) 혹시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직분이나 출신이 도리어 부끄러움이 될만한 일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서로 고백해봅시다.
3.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할례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봅시다.(창17:1~14) 할례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문맥적으로 살펴보며 정리해봅시다.
4. 할례를 기준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은 어떻게 구분되니까?(창17:15~27) 할례의 의미를 볼 때 이삭의 출생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으로 확장해서 생각해보고 발표해봅시다.(골2:11)
5. 예레미야 선지자는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 했습니까?(렘4:4) 바울 역시 유대인의 몸의 할례를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습니까?(롬2:29) 할례의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으로 묵상하며 서로 나누어봅시다.
6. 우리에게는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직장, 학교, 그리고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실천할만한 작은 순종의 결단을 하며 서로 기도합니다.

<기 도>

1. 개인/가정: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의 자국을 남기며 선교적제자로 살아가도록
추석 명절에 거룩함을 지키고, 가족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며 가정예배가 회복되도록
결혼이 늦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만남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2. 교회: 강단에서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예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예배되도록
제자훈련(청장년3기,대학청년1기)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되도록
성경암송학교(9/4~10/16)와 많은 소그룹들을 통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나누는 일이 확산되도록
모든 목양공동체에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기도하며 심방하도록
예배를 돕는 POP, 성가대, 멀티, 방송실, 관현악, 안내, 주차, 정리, 식당 등의 모든 봉사를 위해
3. 나라: 추석명절에 각 가정에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성길 안전과 나라의 평안을 위해
외롭고 가난한 산간벽지 도서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

<설교요약>

1.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율법, 할례를 사랑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자랑은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이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구분 짓는 배타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두 번째 자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만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뿌리 깊은 전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2:17~20)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부터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붙들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와 뿌리로부터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세 번째 자랑거리인 할례로 확장시킵니다.(2:24,25)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로 할례를 자랑하였습니다.

2. 할례는 불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의식이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구약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만드실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된 후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가면서 근심하던 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였습니다. 약속에 따르지 않고 인간의 실력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17:1) 이 단순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꾸짖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단을 칠 때에는 다시 회복하겠다는 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신 후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창17:9,10)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위를 잘라내고 피가 나고 상처가 아물면서 자국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자에게만 남는 자국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3. 할례는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으며 불순종 한 우리도 그 안에서 죽고 살아나 순종하겠다는 고백이다

그러면 할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할례 후에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할례를 중심으로 굽은 차이를 가집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과 육체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반영합니다. 반면 이삭은 할례 후에 은혜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삭을 통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약을 깬 당사자로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의 상징만 남기고 약속을 따라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골2:11)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의 표를 가진 것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렘4:4) 할례는 먼저 우리가 불순종한 죄인이며, 그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통을 감내하는 순종을 보일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때 이루어집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순종의 자국을 남길 때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자 안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 시작됩니다.

